

韓國의 官撰地理志

李 成 茂*

1. 머리말
2. 「三國史記」地理志와 「高麗史」地理志
3. 朝鮮前期의 官撰地理志
4. 「輿地圖書」의 編纂
5. 맺음말

1. 머리말

地理志에는 官撰地理志와 私撰地理志가 있다. 官撰地理志는 國家가 統治資料를 파악하기 위하여 編纂委員을 임명하여 계획적으로 편찬한 地理志이고 私撰地理志는 個人的인 관심하에서 편찬된 地理志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前近代時代에 있어서의 地理志는 대부분 官撰地理志이고 私撰地理志는 대체로 朝鮮後期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쓰여졌다. 그 까닭은 前近代時代에 있어서 個人이 全國을 조사하여 地理志를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그와 같은 일은 國家의 機密에 속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個人이 作成하는 것은 禁忌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地理志를 편찬하는 권한은 오직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地理志의 編纂方向도 국가의 必要에 따라 左右되었다. 뿐만 아니라 地理志의 內容이 豊富하나 못하나 하는 것도 국가의 統治力의 強弱과 그 국가가 營爲하고 있는 文化의 幅이 넓으나 넓지 못하냐에 달려 있었다. 高麗以前에는 獨立된 地理志가 하나도 없다가 朝鮮初朝에 이르러 地理志가 국가적인 규모로 여러 차례 편찬되고 集成될 수 있었던 것도 高麗의 地方統治力 未熟과도 無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朝鮮後期에 이르면 官撰地理志이외에 많은 私撰地理志들이 쏟아져 나온다. 韓百謙의 東國地理誌, 李重煥의 擇里志, 丁若鏞의 我邦疆域考, 金正浩의 大東地志 등이 그 예이다. 이들 私撰地理志들은 西洋科學文明의 影響을 받은 實學者들에 의하여 대부분 쓰여졌다. 이들은 先進外來思潮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世界觀을 확립하고 民間次元에서의 實生活條件을 파악하는 方便으로서 個人的으로 각종 特殊志들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私撰地理志 作成의 盛行은 西歐文化의 傳來에 對應하기 위한 自我의 發見이라는 歷史的인 大勢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韓國學大學院 教授

그러나 官撰이건 私撰이건 朝鮮人들의 地理志編纂 作業은 光武 3년(1899)의 各官邑誌 編纂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地理志編纂이 日帝의 植民地統治를 위한 資料蒐集의 方便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물론 各官別 個別邑誌의 편찬이 계속되기는 하였지만 그 편찬 방법과 방향이 朝鮮時代의 것과는 다르므로 이 時期에 편찬된 邑誌들을 日帝時代의 邑誌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高麗時代부터 日帝時代에 이르는 우리의 邑誌들이 그 編纂主體나 編纂方法이 각각 다르기는 하였으나 그 內容이 모두 傳統韓國의 歷史와 文化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資料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傳統地理志의 編纂來歷과 特性을 파악해 보는 것은 우리 歷史研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 前近代時代에 있어서의 地理志의 性格을 이해하는 데는 地理志編纂의 初期形態인 官撰地理志의 編纂背景과 內容의 特性을 파악해 보는 것이 捷徑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朝鮮時代의 官撰地理志 編纂의 歷史를 간단히 一瞥해 보고자 한다.

2. 「三國史記」地理志와 「高麗史」地理志

「三國史記」地理志는 「三國史記」50卷 중 34~37卷의 4卷으로 들어가 있는데 34~36卷은 新羅, 37卷은 高句麗·百濟의 地理志로 되어 있다. 이 중 新羅部分은 대체로 統一新羅時代의 九州를 중심으로 한 郡縣의 歷史的 變遷過程을 극히 疎略하게 수록해 놓은 一覽表에 지나지 않으나 이를 통하여 우리는 統一新羅時代의 地方行政組織의 實際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高句麗·百濟에 관한 나머지 한 卷은 더욱 疎略하여 地名들을 編纂者들 조차 어디에 소속시켜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질서하게 나열해 놓은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地名중에는 鄉·村·宮·通·驛·城 등으로 表記된 것들이 있는데 「方言에 소위 鄉·部曲 등 雜所는 모두 收錄치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위의 기록에서 빠진 것들도 적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외에 鴨綠江이북에 있는 여러 城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無名의 都督府와 함께 나오는 몇 개의 州縣은 百濟가 亡한 뒤에 설치된 熊津都督府管下의 州縣들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¹⁾

이와 같이 「三國史記」地理志는 주로 당시의 郡縣名을 나열해 놓은 데 지나지 않았을 뿐 국가가 필요로 하는 統治資料를 提示하는 점에서는 크게 未洽하다. 이는 「三國史記」가 三國이 멸망한지 200년 뒤에 만들어졌으므로 記錄이 많이 燬滅된 데서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郡縣制度가 제대로 整備되지 못하여 中央政府가 地方勢力을 충분히 統制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高麗史」地理志는 「高麗史」139卷 중 56~58卷의 3卷으로 들어가 있는데 高麗가 건국된

(1) 李基白: <「三國史記」解題> (「韓國의 名著」玄岩社 刊) 1969.9, p.p. 90.

918년부터 高麗가 멸망한 1392년까지 약 500년간의 高麗郡縣의 沿革을 無味乾燥하게 나열해 놓은 地名一覽表에 불과하다.⁽²⁾ 「高麗史」地理志에는 다른 志에서 처럼 一般論이 없이 직접 內容단을 서술하고 있는데 全國을 開城과 5道(楊廣道·慶尙道·全羅道·交州道·西海道) 兩界(東界·北界) 14主牧(京·牧·都護府) 116主縣(郡·縣) 374屬縣으로 나누어 그 相互統屬關係를 밝히고 있을 뿐 縣以下の 行政區域에 대해서는 郡縣으로 승격된 것이나 郡縣에서 格下된 것 이외의 鄉·所·部曲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高麗史」地理志는 高麗前期의 主牧中心의 領屬關係와 高麗後期の 道中心의 領屬關係를 하나의 表안에 편성하므로써 混亂을 빚게 하였으며 「高麗史」撰者들의 理解下足으로 地理志 구조의 不均衡을 초래하기도 하였다.⁽⁴⁾

이와 같이 「高麗史」地理志는 同時代에 편찬된 「慶尙道地理志」, 또는 「世宗實錄」地理志에 비하여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後者が 당시의 政治·經濟·社會·歷史·文化에 대한 폭 넓은 關心을 바탕으로 편찬된 풍부한 內容을 가진 人文地理書인데 비하여 前者는 疎略하고 時代가 맞지 않는 地名의 羅列에 그친 紀傳體의 「志」의 一部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前者에는 그 地域住民의 構成과 身分을 이해할 수 있는 姓氏에 관한 기록조차 빠져 있는 것이다.

「高麗史」地理志가 이와 같이 疎略한 까닭은 아마도 高麗時代의 地理에 관한 記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또 高麗政府가 地方郡吏勢力을 완전히 統制할 수 없었던 實情에서 緣由한 것이라 생각된다. 高麗時代만해도 中央政府가 地方郡吏를 완전히 統制할 수 없어서 地方郡縣도 郡吏勢力의 大小에 따라 크기가 달랐던 만큼 郡縣別로 人的·物的 資源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中央政府에서는 地方官이 파견된 主縣을 통하여 地方을 統治하되 屬縣以下の 任內는 土着郡吏에게 自治權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다가 蒙古의 侵入을 비롯한 外難을 거듭 당한 나머지 地方郡縣에 관한 충분한 資料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 이에 「高麗史」撰者들은 郡縣以上の 地名만을 기록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郡縣以下の 行政區域인 鄉·所·部曲·莊·處의 地名이 많이 빠지고 郡縣以上の 地名조차도 通時代的으로 記錄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예컨대 大區劃으로 되어 있는 5道·兩界는 忠肅王代(14C)에 정해진 것인 데 비하여 開城府의 13個의 任內(屬部 1, 屬縣 12)는 이미 文宗代(11C중엽)에 정해진 것을 平面的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든지 地名自體는 中國式으로 表記되어 있으나 많은 郡縣에 地方官이 파견되지 않았던 高麗時代의 郡縣名을 朝鮮時代의 郡縣概念으로 파악하여 아무런 說明없이 같은 表에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⁵⁾

(2) 旗田巍：〈「高麗史」地理志について〉(朝鮮中世社會史의 研究) 1972. 10, p.140.

(3) 邊太燮：〈「高麗史」의 綜合的 檢討〉未刊 print p.72.

(4) 同上 p.73.

(5) 旗田巍：前掲論文 p.142.

그러나 「高麗史」地理志가 이와 같이 많은 缺陷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高麗時代의 地理에 관한 唯一한 기록이고 그 編輯의 잘못된 점을 考慮하면서 이용한다면 그런대로 高麗時代 歷史研究에 좋은 資料가 될 수 있다.

3. 朝鮮前期의 官撰地理志

朝鮮前期에 편찬된 地理志로는 世宗 14년(1432)에 편찬된 「新撰八道地理志」, 端宗 2년(1454)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 成宗 8년(1477)에 편찬된 「八道地理志」, 成宗 12년(1481)에 편찬된 「東國輿地勝覽」등 4種이 있다. 그러나 이 중 「新撰八道地理志」와 「八道地理志」는 지금 전하여지지 않고 前者 중 「慶尙道地理志」, 後者 중 「慶尙道續撰地理志」만이 전하여지고 있다.

「新撰八道地理志」는 世宗 6년(1424) 11월, 世宗이 당시 大提學이었던 下季良에게 地志 및 州·府·郡縣의 沿革을 撰進하라⁽⁶⁾는 命을 내린지 8년 뒤인 世宗 14년(1432) 正月에 完成된 朝鮮王朝 最初의 官撰地理志이다.⁽⁷⁾ 그러나 이 地理志는 불행히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있어서 그 자세한 內容을 알 수 없고 다만 이 地理志를 편찬하기 위한 準備作業으로서 各道에서 撰進한 道誌의 하나인 「慶尙道地理志」만 전할 뿐이다. 「慶尙道地理志」는 世宗 6년(1424) 戶曹가 慶尙監營에 道誌를 撰定하라는 命을 내린 1년만인 世宗 7년(1425) 12월에 知大丘郡事 琴柔, 仁同縣監 金鑣이 편찬하여 春秋館에 바친 慶尙道の 道誌이다.⁽⁸⁾ 「慶尙道地理志」가 中央政府의 命을 바탕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規式은 一貫된 基準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道別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規式대로 統一性있게 기록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점이 오히려 「慶尙道地理志」의 獨自의인 價値를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慶尙道地理志」의 編目을 살펴 보면 慶尙道에 소속되어 있는 郡縣의 沿革·山川·界域·交通·戶口·姓氏·人物·土產·行政·財政·經濟·土木·產業·教育·軍備·醫藥·陵墓·古跡·名勝·樓臺·寺院 등 광범한 기록을 내포하고 있다. 「三國史記」·「高麗史」의 地理志가 겨우 「志」의 一部로서 郡縣의 이름과 沿革만을 나열하고 있는 데 비하여 「慶尙道地理志」는 보다 폭 넓은 人的·物的 資源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6) 召大提學下季良曰 故老漸稀 不可無文籍 本國地志及州府郡縣古今沿革 俾撰以觀 然今春秋館事劇 地志則不可爲也 姑撰州府郡縣沿革而觀之(中略) 季良啓曰 地志及州郡沿革一體事也 使兼春秋館一人掌之臣與卓愼·尹淮共議撰之(中略) 上曰(中略) 地志及州郡沿革 卿今撰進(「世宗實錄」卷 26 世宗 6年 11月 丙戌條)

(7) 領春秋館事孟思誠·監館事權軫·同知館事尹淮·申椅等 進新撰八道地理志(「世宗實錄」卷55 世宗 14年 正月 己卯條)

(8) 皇明永樂二十二年甲辰(1424년, 世宗 6年) 冬十有二月朔日壬寅 春秋館受教慶尙道府郡縣歷代官號 邑名沿革及離合 令戶曹 移關各道 備細推覈 轉送本館 以憑參考(中略) 據此令 知大丘郡事琴柔·仁同縣監金鑣 主掌其事 馳行諮問 遵依規式 補以闕略 纂成一部 轉送于春秋館(中略) 峇大藏乙巳冬十有月朔日丙寅 監司敬齋晉陽河演淵亮識(慶尙道地理志序)

『慶尙道地理志』의 內容으로 미루어 보아 「新撰八道地理志」는 朝鮮王朝의 統治資料를 파악하기 위하여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新撰八道地理志」가 그 당시에 刊行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八道地理志」는 草稿本으로 있다가 약간의 修正·補完을 거쳐 端宗 2년(1454)에 「世宗實錄」을 편찬할 때 그 附錄으로 편입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慶尙道地理志」의 編目과 內容이 「世宗實錄」地理志의 慶尙道分과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世宗實錄」地理志는 世宗 14년(1432)에 편찬된 「新撰八道地理志」의 內容중 그 이후에 변동된 事項만을 조금씩 고쳐 「世宗實錄」을 편찬할 때 附錄으로 넣은 것이었다. 「世宗實錄」地理志 序에 「厥後 離合不一 特舉兩界新設州鎮 續附于其道之末云」이라 한 것을 보아 「世宗實錄」地理志는 前者인 「新撰八道地理志」의 內容중 일부 바뀌어진 事項만을 原文은 그대로 두고 그 道の 末尾에 附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가장 많이 바뀐 곳은 신설된 兩界州鎮이었다. (그러나 郡縣制 整備에 따라 鄉·所·部曲數는 줄어드는 반면에 계속적인 戶口·田結調査의 결과로 人口·土地數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世宗實錄」地理志의 原型은 「新撰八道地理志」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官撰地理志들도 이 「新撰八道地理志」의 內容을 바탕으로 그 體制와 內容을 조금씩 修正·補完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朝鮮王期에서는 先王의 法制를 重히 여겨 특별한 事由가 없는 이상 이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 일부만 修正·補完해 가는 傳統이 있었다. 「新撰八道地理志」 내지는 「世宗實錄」地理志가 朝鮮王朝 官撰地理志의 模本이 되었던 것도 그러한 例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世宗實錄」에 地理志를 비롯한 「志」가 收錄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緣由에서인가? 이는 당시에 文衡을 잡고 있던 鄭麟趾의 주장 때문이었다. 「世宗實錄」을 편찬할 때 그는 許詡 등과 더불어 金銚·朴仲林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世宗代에 제정된 樂譜, 五禮, 七政算內·外篇, 地理志 등을 附錄으로 실을 것을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켰다.⁽⁹⁾ 그에 의하면 世宗代에는 制禮作樂한 것이 많으므로 이를 實錄에 별도의 「志」로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實錄은 編年體이기 때문에 이러한 「志」를 實錄에 넣으려면 附錄으로 넣을 수 밖에 없었다. 鄭麟趾는 「世宗實錄」이 편찬되기 1년전에 既往에 編年體로 바꾸어 쓴 經驗을 가지고 있었다. 鄭麟趾가 編年體인 「世宗實錄」에 紀傳體에 해당하는 「志」를 附錄으로 넣자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經驗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世宗實錄」代理志에는 慶尙·全羅·黃海·江原·平安·咸吉道 등 八道에 소속되어 있는 328郡縣(留守府 4, 大都護府 4, 牧 17, 都護府 33, 郡 90, 縣 180)에 관한 각종 人文地理的인 內容을 실고 있는데⁽¹⁰⁾ 그 編目은 다음과 같다. 官員·沿革·四境·所管·幅圓·名山·

(9) 金宗瑞啓 今撰世宗實錄 鄭麟趾許詡曰 世宗立經陳紀制禮作樂之事甚多 如儀註當別爲志 以便考閱 則實錄不至煩冗矣 金銚朴仲林李季甸鄭昌孫曰 凡制禮作樂之事 宜於實錄逐日以錄 臣亦未知可否 上曰 於實錄詳記爲可 宗瑞曰 臣意亦以爲然 但鄭麟趾掌文翰者 乃曰當別作志 臣不敢違(「文宗實錄」卷13 文宗 2年 5月甲午條)

(10) 金田培：(世宗實錄地理志解題) (大元文化社 刊), 1973. 9, p. 11.

大川·漕運·戶口·軍丁·墾田結數·貢賦·藥材·土產·軍營·驛館·文廟·姓氏·城廓·牧場·烽燧·人物·樓亭·風俗·津渡·鎭山·王陵·墓祠·行祭·離宮·寺刹·魚梁·關防·古跡·堤池·島嶼·鄉所部曲·木柵·越境處·溫泉·靈異·遞馬所·要害 등이 그것이다. 특히 戶口·軍丁·貢賦·田結·土產·漕運 등 租稅·力役收取에 필요한 經濟關係의 事項과, 名山·大川·軍營·驛館·城廓·牧場·烽燧·關防 등 國防에 관한 事項과, 姓氏·人物 등 住民들의 身分構成에 관한 事項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世宗實錄」地理志는 統治資料를 蒐集·把握하기 위하여 편찬되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朝鮮王朝의 새로운 政治·社會·經濟的 基盤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作業이었다고 생각된다.

「新撰八道地理志」가 편찬되지 45년 뒤인 成宗 8년(1477) 12월에는 「世宗實錄」地理志 이후에 변경된 事項을 補正하기 위하여 「八道地理志」가 편찬되었다. 「八道地理志」는 端宗 元年(1453)의 癸酉靖難으로 實權을 장악한 首陽大君이 梁誠之에게 그 편찬을 명하므로서 시작되어 그 해에 京畿道志가, 그 다음 해에 平安道誌가 편찬되었으나 그 이외의 道誌는 편찬되지 못하였다. 그 후 睿宗이 即位하면서 「八道地理志」編入事實을 뽑아 올릴 것을 명하였으나 「世祖實錄」편찬 때문에 그 편찬이 지연되어 오다가 成宗 4년(1473)에 梁誠之로 하여금 地理志撰修를 再開하도록 하여 成宗 8년(1477) 12월에 그 完成을 보게 되었다.⁽¹¹⁾ 그러나 이 때에 完成된 「八道地理志」는 지금 남아 있지 않고 睿宗 元年(1469)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志」만 남아 있다.

「慶尙道續撰地理志」는 睿宗 元年(1469) 正月에 王命으로 편찬되기 시작하여 그 해 3월에 完成되었다.⁽¹²⁾ 睿宗 即位年(1468) 11월에 「八道地理志」考定을 명한지 2개월 뒤의 일이다. 그러나 「慶尙道續撰地理志」는 「慶尙道地理志」와는 달리 애초부터 道誌로 편찬되었다. 「八道地理志」는 본래 八道の 道誌를 모아 놓은 데 불과한 것이었다. 「慶尙道續撰地理志」도 中央으로부터 地理志續撰事目을 下達받아 편찬된 것이기도 하나 그 內容은 「世宗實錄」地理志를 補完한 데 불과한 것으로 世宗 12년(1430) 이후의 郡縣沿革 등 變更事實만을 修正·附加하는 데 그치고 있다.⁽¹³⁾ 그런데 「世宗實錄」地理志가 政治·社會·軍事·經濟分野에 관한 기록이 자세한 데 비하여 「慶尙道續撰地理志」는 禮俗分野에 관한 기록이 강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慶尙道續撰地理志」가 편찬된 睿宗成宗代에는 世宗代에 확립된 社會·經濟的 基盤위에 儒敎文化를 擴散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八道地理志」가 完成된지 4년 뒤인 成宗 12년(1481) 4월에는 「東國輿地勝覽」 50卷이 편찬되었다.⁽¹⁴⁾ 「東國輿地勝覽」은 成宗 7년(1476) 12월에 盧思愼·姜希孟·徐居正·成任·梁

(11) 鄭柱熙：〈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Ⅱ〉(「歷史學報」第 70輯), 1976. 6, p. 90.

(12) 同上

(13) 同上, p. 91.

(14) 同上, p. 104.

誠之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는데 그 體制는 嘉熙 3년(高麗 高宗 26년, 1239)에 작성된 南宋 祝穆의 「方輿勝覽」의 體制를 參酌하였으며, 그 內容은 「八道地理志」에 「東文選」에 收錄된 詩文을 添加하는 데 그치고 있다.⁽¹⁵⁾ 그러나 明天順 7년(世祖 9년, 1463)에 「大明一統志」가 간행되자 成宗 16년(1485) 3월에 金宗直 등이 「東國輿地勝覽」을 「大明一統志」體制로 바꾸고 그 內容도 대폭 修正・補完하였다.⁽¹⁶⁾ 그 후 金宗直의 修正本은 燕山君 5년(1499)에 任士 洪成倪 등에 의하여 다시 校正되고,⁽¹⁷⁾ 中宗 26년(1531) 6월에 李符 등에 의하여 增補되어 「新增東國輿地勝覽」 55卷으로 刊行되었다.⁽¹⁸⁾ 그런데 이 「東國輿地勝覽」에는 政治・經濟・軍事關係 記錄뿐 아니라 禮俗・詩文 등 儒敎的 文化要素가 보다 強調되어 있다는 점에서 注目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東國輿地勝覽」은 朝鮮朝 儒敎文化의 確立期에 集大成된 官撰地理志의 典型이었다고 할 수 있다(端宗 3년의 乙亥字로 印刷된 「東國輿地勝覽」의 初刊本 중 卷37・38이 金斗鍾 博士에게 所藏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朝鮮前期의 官撰地理志는 世宗 14년(1432)의 「新撰八道地理志」 편찬으로부터 시작하여 「世宗實錄」地理志・「八道地理志」를 거쳐 中宗 26년(1531)의 「新增東國輿地勝覽」으로 集大成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朝鮮前期의 官撰地理志는 一般에게 널리 읽히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 아니라 國家의 統治資料 파악을 위하여 편찬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官撰地理志의 集大成은 朝鮮前期에 있어서의 中央集權의 兩班官僚體制의 확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變遷한 獨立 官撰地理志 하나 남기고 있지 못한 高麗時代에 비하여 中央政府의 統治能力의 強化를 助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輿地圖書」의 編纂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 지 270년 뒤인 英祖 41년(1765)에 55冊이 편찬되었다.⁽¹⁹⁾ 「輿地圖書」의 편찬은 英祖 33년(1757) 8월에 英祖가 당시 弘文館修撰 洪良浩(漢)에게 八道邑誌를 편찬할 것을 명하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洪良浩는 方色으로 境界로 표시한 「三國基址圖」와 鄭恒齡家에 所藏되어 있는 「東國大地圖」를 올리고, 英祖가 다시 地圖의 重要性을 강조하자 또 「八道分圖帖」을 올려 그 模寫本을 弘文館과 備邊司에 備置하도록 한 바 있었다.⁽²⁰⁾ 그 후 英祖는 「東國輿地勝覽」을 補完하기 위하여 八道에 勅을 내려 邑誌를 편

(15) 成化二十一年(成宗 16年) 三月日 上命承政院 召今平安道觀察使成倪 忠清道觀察使 臣蔡壽泊 臣金宗直 出示宣城府院君臣盧思 愼等所進東國輿地勝覽五十卷 仍傳曰 是書 據祝穆之編 提其事要 兼采詩文 博求而廣記之(「東國輿地勝覽」 金宗直跋)

(16) 仍傳曰(中略) 當其凡例 一以大明一統志爲法(同上條)

(17) 鄭杜熙, 前揚論文, p. 105.

(18) 李泰鎮: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歷史의 性格」(「震檀學報」 第 46・47合輯) 1979. 6, p. 256.

(19) 崔泳禧: 「輿地圖書解說」(國史編纂委員會刊) 1973. 12, p. 6.

(20) 同上 p. 4.

찬해 올리게 하여 英祖 41년(1765)까지 편찬된 邑誌들을 한 데 모아 成冊하였다. 이 英祖 33년本 邑誌들은 그 후에도 계속 修正되고 英祖 41년(1765) 12월에는 弘文館으로 하여금 各道邑誌를 모아 輿地圖를 적어 올리게 하였다. (대부분의 邑誌들은 英祖 36년경에 완성되었다.) 이 英祖 33년~41년 사이에 편찬된 邑誌가 현존하는 「輿地圖書」와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現存하는 「輿地圖書」는 崔奭祐 神父의 所藏本을 基本으로 1973년에 國史編纂委員會에서 影印 刊行한 <史料叢書 第 20>의 것인데⁽²¹⁾ 이것은 內入한 原本이 아니라 個人이 가지고 있던 副本이었던 것 같다. 「輿地圖書」란 書名은 徐命膺에 의하여 命名되었고 徐命膺은 英祖朝에 八道邑誌를 모으는 일을 담당했던 李澈의 밑에서 實務를 맡았던 사람이니 혹시 「輿地圖書」가 그가 가지고 있던 副本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 冊이 徐命膺이 가지고 있던 副本이었다 하더라도 그 副本이 그 時代에 結冊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邑誌마다 편찬술씨가 다르고 缺本(38邑誌·2營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國史編纂委員會에서 「輿地圖書」를 影印할 때에는 그 缺本分을 奎章閣·國立中央圖書館·崔奭祐神父本 중 편찬년대가 가장 가깝고 확실한 것으로 補完하였다.⁽²²⁾

「輿地圖書」의 編目은 疆域·坊理(戶口包含)·道路·建置沿革·郡名·形勝·城池·官職·山川·姓氏·風俗·陵寢(墓)·壇廟·公廨·堤堰·倉庫·物產·橋梁·驛院·牧場·關防·烽燧·樓亭·寺刹·古跡·鎮堡·人物·旱田·進貢·糶糴·田稅·大同·俸廩·軍兵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東國輿地勝覽」의 編目과 비교해 보면 坊里(戶口·編戶·官衙까지의 거리)·堤堰·田結(旱田·水田)·賦稅(進貢·糶糴·田稅·大同·物稅·軍兵)·學校·詩文 등의 編目이 新設, 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文化의 內容이 變化되어 갈 뿐 아니라 그 幅이 그만큼 넓어져 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輿地圖書」55冊의 構成은 京畿 5冊(1~5), 忠淸 8冊(6~13), 江原 4冊(14~17), 黃海 5冊(18~21), 平安 9冊(22~30), 咸鏡 5冊(31~35), 慶尙 14冊(36~49), 全羅 6冊(50~55)으로 되어 있고 각 道誌에는 道全圖(雙葉彩色地圖) 한 장과 道總論(古今沿革·郡名), 道各論(監營·鎮營別—分量에 따라 適宜 配分)이, 각 邑誌에는 邑全圖(雙葉彩色地圖) 한 장, 邑各論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輿地勝覽」을 「輿地圖書」라고 한 것만을 보아도 「輿地圖書」에서는 地誌뿐 아니라 地圖가 強調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冊에서는 地圖의 內容이 豊富해졌을 뿐 아니라 從來의 單色地圖에서 多樣한 彩色地圖로 바뀌어지고 있다. 地圖가 발달한다는 것은 地誌의 內容을 한층 더 一目瞭然하게 해 주는 效果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注目된다.

「輿地圖書」이후로도 「文獻備考」의 輿地考, 光武 3년(1899)本 邑誌 등이 계속 편찬되었으나 獨立冊子로 나오지 못하였고 그 體制와 內容은 「輿地圖書」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21) 同上 p.3.

(22) 同上 p.2.

있다. 이러한 점에서 「輿地圖書」는 朝鮮朝 官撰地理志의 完成版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 음 말

地理志에서는 官撰地理志와 私撰地理志가 있었는데 官撰地理志는 國家의 統治資料를 수집하기 위하여, 私撰地理志는 個人的인 關心下에 편찬된 地理志이다. 私撰地理志는 처음에는 地理에 관한 조사가 국가 機密에 속하여 금지되어 있다가 西歐文明의 流入으로 意識이 擴大된 朝鮮後期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였으나 官撰地理志는 高麗時代부터 편찬되어 왔고 朝鮮前期에는 더욱 발달하여 獨立冊子로 刊行되기에 이르렀다. 官撰地理志가 朝鮮前期에 이르러 內容이 더욱 充實해진 것은 이 시기에 와서의 國家의 中央集權體制가 대체로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官撰地理志의 傳統은 「三國史記」·「高麗史」의 地理志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당시는 中央政府의 地方統制力도 약하였고 또 記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地理志의 內容이 대체로 地名을 나열해 놓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中央集權體制가 갖추어진 朝鮮前期에 이르러 「新撰八道地理志」(1432년), 「世宗實錄」地理志(1454년), 「八道地理志」(1477년), 「東國輿地勝覽」(1481년), 「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등의 單行本 官撰地理志가 계속적으로 補完·刊行되었다. 그러나 이 중 「新撰八道地理志」는 「慶尙道地理志」만, 「八道地理志」는 「慶尙道續撰地理志」만 傳할 뿐 刊行되지 않았다. 그러나 「新撰八道地理志」가 「世宗實錄」地理志 편찬에 기초가 되었고, 여기에 이후 變更된 事項을 補正하여 「八道地理志」를 편찬하였으며 여기에 「東文選」에 收錄된 詩文과 郡縣沿革 등 變更事實만을 附加하여 「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고, 이를 다시 「大明一統志」體制로 바꾸어 中宗 25년(1530)에 「新增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한 것이다. 그러므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은 朝鮮朝 官撰地理志의 典型이라 할 수 있고 그 이후의 邑誌 편찬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지 270년 뒤인 英祖 33년(1757)에 「輿地圖書」이 편찬되었으나 前者의 編制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고 다만 地圖를 상세히 덧붙여 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 후 1899년에 全國邑誌를 조사하여 모으기는 하였으나 單行本으로 成冊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朝鮮時代의 官撰地理志는 中央集權的 兩班官僚體制가 확립된 朝鮮前期에 가장 활발히 편찬되다가 朝鮮後期에 이르면 西歐文明의 영향으로 意識이 擴大되어 私撰地理志가 많이 편찬됨에 따라 이에 눌러 그 편찬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